



박정현 7월의 신부...예비신랑은 대학교수

지인 소개로 3년 열애 끝 결실
측근들 “과묵하고 자상한 사람”

가수 박정현(41)이 교제 중인 연상의 캐나다 교포와 7월 결혼한다.

25일 관계자에 따르면 박정현은 7월 15일 미국 하와이 카우아이섬에서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다. 두 사람은 부모와 형제매 등 직계가족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고 경건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박정현은 2014년 지인의 소개로 예비신랑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3년 만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 2015년 1월 열애 소식이 공개된 이후 박정현이 꾸준히 방송을 통해 남자친구와 핑크빛 연애담을 들려줘 결혼이 예견돼온 터였다.

박정현의 예비신랑은 현재 서울의 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박정현의 측근들에 따르면 호감 가는 외모에 운동으로 다져진 건장한 체격을 갖추고 있다. 과묵하고 자상하며 온화한 인품을 가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 박정현은 4월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해 “겉모습보다는 행동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박정현은 5월 말 공연차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 가족이 있는 LA에서 결혼 준비에 한창이다. 박정현은 결혼식 이후 예비신랑과 그 자신 각각의 친지 및 친구들이 있는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 LA를 차례로 방문한 후 8월 귀국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난 박정현은 14살 때 ‘다우니 웨이 아우터 브로드웨이’ 텔런트 콘테스트’에서 보컬 부문 대상을 수상

하는 등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으로 현지 각종 콘테스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국내 가요계의 러브콜을 받고 1998년 ‘나의 하루’ ‘P.S 아이 러브 유’ 등이 수록된 1집 ‘피스’를 발표하며 데뷔했다. 이후 ‘유 민 에브리싱’ ‘편지할게요’ ‘꿈에’ 등 히트곡을 발표했고, 뛰어난 가창력으로 ‘라이브의 여왕’ ‘R&B 요정’ 등의 수식어를 얻었다. 2011년 MBC ‘일밤-나는 가수다’는 더욱 폭넓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됐다. 학업 성적도 우수해 1994년 UCLA에 입학했으며 2001년에는 컬럼비아대로 편입했다. 10·20대의 많은 여가수들이 닮고 싶어 하는 톨모텔로 꼽힌다.

박정현은 8월 귀국 이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꾸준히 가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장나라 “박보검 결혼설 황당...모르는 후배”



장나라

배우 장나라가 박보검과 결혼설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장나라는 24일 SNS에 “(박보검을)본 적도 모임도 없었다. 지나가다 만난 적도 없다. (서울)청담동 웨딩거리가 어디인지도 모르며 대부분의 시간을 집 근처에서 보낸다”면서 “촬영현장서 좋은 연기자이고 싶고, 좋은 후배, 좋은 선배가 되고 싶어 나를 노력해 왔는데, 전 알지도 못하는 일로 민폐 선배가 되었다. 그러지 마세요”라고 불편한 속마음을 드러냈다. 앞서 장나라와 박보검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출처미상의 사실정보지 내용이 23일 기사화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가인에 대마초 권유했다는 박씨 본격 수사

가수 가인(손가인·30)이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권유받은 사실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가인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박씨가 주변 인물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을 비교하는 등 혐의점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찰은 6일과 8일 가인과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AOA 초아 팀 탈퇴선언...소속사 “최대한 존중”



초아

결그룹 AOA 멤버 초아의 팀 탈퇴 선언에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FNC 측은 “초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탈퇴라는 것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문제이지 SNS상에서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초아의 탈퇴 여부와 향후 계획은 현재로서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함께 입국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재차 불거진 이모씨와 열애설에 초아는 “민고 의지하는 사람일 뿐”이라며 부인했다.

가수 지드레곤, 6월 가수 브랜드 평판 1위에

가수 지드레곤이 2017년 6월 가수 브랜드 평판 1위에 올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17년 5월23일부터 2017년 6월24일까지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6300만6736개를 통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참여, 미디어, 소문, 커뮤니티를 분석, 이 같은 순위를 도출해냈다. 1위 지드레곤은 브랜드 평판 지수 719만3604로 분석됐고, 2위 트와이스는 673만5146으로 집계됐다. 방탄소년단 싸이 세븐틴 마마무 아이유 블랙핑크 러블리즈 레드벨벳이 3~10위로 뒤를 이었다.

최정원 MBC ‘당신은 너무합니다’ 중간투입

연기자 최정원이 MBC 주말극 ‘당신은 너무합니다’에 중간 투입, 25일부터 촬영에 합류했다. 윤아정의 소개로 엄정화와 인연을 맺는 인물로 극의 전개를 이끌 예정이다. ‘당신은 너무합니다’는 결혼 준비에 본격 나선 정겨운과 장희진을 방해하려는 윤아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는 스타가수와 모창가수의 애증과 연민이 얹히고설켜는 이야기다.

원하면 행동하라!...후미코와 닮았다고요?

독립운동가 ‘박열’의 연인 후미코 열연한 최희서

5편의 시나리오, 4편의 독립영화...
원하는 삶을 개척하는 난 행동파
후미코 용맹함에 비하면 새발의 피

최희서(30)는 스스로를 ‘행동파’라고 칭했다. 생각하고 우물쭈물하다 기회를 놓치고서야 후회하는 타입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원하는 게 있으면 당장 실천하는 성격. “집에서 종일 뒹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는다”고도 했다.

최희서는 유년기를 일본 오사카에서 보냈다. 5년 동안 살면서 한인초등학교를 다녔고, 그때 연극 ‘삼청전’을 무대에 올려 주인공 심청을 연기했다. 연기자의 꿈이 시작된 때이다. 대학교 입학식 날, 최희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학내 극단인 연희극회였다.

“2008년 3월2일 연희극회에 입단했다. 수업 끝나면 6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연극을 연습했다. 4학년 때까지 그렇게 지냈다.”

최희서의 데뷔작은 스무살 때인 2009년 출연한 영화 ‘김종을 들다’. 그로부터 8년간 그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도, 연기와 떨어지지 않는 체 ‘무명배우’로 살았다. 연극무대에 서고, 독립영화에도 참여했다. 그 시간 끝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알릴 첫 번째 기회를 앞두고 있다. 28일 개봉하는 영화 ‘박열’(제작 박열문화전문유한회사)이다.

“내게게 오랜 시간이 아니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고 싶었으니까. 단편영화든 워크숍 형식의 작업이든 기회 닿는 대로 했다. 집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해 한 달에 한 번씩 유튜브에도 올렸다.”

최희서는 지금까지 다섯 편의 시나리오를 썼고, 그 중 네 편을 독립영화로 만들었다. 그 중 세 편에는 주연으로 나섰다.

“대학 4학년 때 친구들과 연합동아리를 만들어 1년에 한두 편씩 작업해왔다. 첫 영화가 서울에 관한 이야기여서 우리 모임 이름이 서울라이트필름이다.(웃음) 훗날 경제적으로 갖춰지고 더 노련해지면 영화 제작도 하고 싶다.”

원하는 삶을 개척하는 최희서는 ‘박열’에서 그가 연기한 후미코와 상당히 닮았다. ‘박열’에 출연하는 과정도 적극적인 성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14년 때의 일이다. 최희서가 친구들과 심시일반 돈을 모아 연극 ‘사랑이 불탄다’를 준비하던 무렵, 어느 때처럼 연습실로 향하는 지하 철에 앉아 대본 연습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그를 유심히 지켜본 이가 영화 ‘동주’의 제작자인 신연식 감독. 같은 역에서 내린 최희서에게 신 감독은 명함을 건넸고, 얼마 뒤 ‘동주’의 오디션을 제안했다.

‘동주’에 짧게 출연한 최희서는 이후 이준익 감독이 ‘박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어 대사를 감수하고 자료를 찾는 일을 도왔다. 일본 황태자의 암살을 계획한 독립운동가 박열(이재훈)의 연인이자 동지인 일본인 여성 후미코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최희서에게 주어졌다.

“후미코는 자아성찰을 많이 한 사람이다. 자서전을 읽어보면 당시 빈민계층으로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억압의 기록이 전부 남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낸 어마어마한 인물이다. 나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 용맹함에는 감히 다가갈 수 없다.”

최희서는 ‘박열’과 같은 날 개봉하는 ‘옥자’에도 통역사 역할로 짧게 등장한다. 대학 시절 교환학생 경험 등으로 쌓은 영어 실력 역시 수준급이다. 미국드라마 오디션에도 꾸준히 도전한다. 얼마 전에는 미드 ‘설국열차’ 오디션을 봤다. “연락이 없는 걸 벌써 떨어진 것 같다”며 웃어 보였다.

“미드 오디션 지원서에는 배우의 나이를 쓰지 않는다. 대신 연기가 가능한 나이의 범위를 쓴다. 합리적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포털사이트에서 내 나이와 학력 내용을 없앴다. 물론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웃음), 온전한 나를 보이고 싶은 마음이다.”

이해리 기자 goil1024@donga.com
사진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최희서
▲1987년 1월7일생 ▲2008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입학, 2014년 졸업 ▲미국 UC버클리 교환학생 공연예술학과 전공 ▲2009년 영화 ‘김종을 들다’ 데뷔 ▲2011년 MBC 드라마 ‘오늘만 같아라’ ▲2014년 영화 ‘사랑이 이긴다’ ▲2016년 ‘동주’, ‘시선사이’

‘군함도’ 보조출연자 홀대 폭로, 그 진실은?

“사실과 다르다” 또 다른 출연자 반박 속
폭로 주장한 누리꾼, 영화참여 확인 안돼
불편한 영화소제...‘의도적 폭로’ 의혹 제기

영화 ‘군함도’가 촬영에 참여한 보조출연자를 홀대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자신을 ‘징집된 조선인으로 군함도에 고정출연한 배우’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24일 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촬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화제작사 측과 또 다른 보조출연자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해당 누리꾼은 “12시간 넘게 촬영한 날이 태



영화 ‘군함도’

반”이라며 “최저임금도 안 되는 출연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촬영장에서 보조출연자를 빼고 간식으로 나온 아이스크림을 배우와 스태프끼리 먹

어 소외감을 느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25일 ‘군함도’에 참여했다고 밝힌 또 다른 보조출연자들의 반박이 터져 나왔다. 폭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표준근로계약에 따라 추가 촬영 때는 추가 임금을 받았다는 설명과 함께 계약서를 증거로 첨부한 이들도 있다.

처음 글을 쓴 작성자가 실제 ‘군함도’ 촬영에 참여한 인물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와 별개로 영화가 가진 화제성으로 인해 논란은 확산됐다. ‘군함도’는 제작비 220억원이 투입된 대작으로, 류승완 감독이 연출하고 황정민, 송중기가 출연한 올해 여름 최대 기대작인 만큼 관심은 더욱 집중됐다.

제작사 외유내강은 의혹이 확산되자 25일 입장을 밝혔다. 제작사는 “전체 115회차 촬영 중 12시간이 넘는 촬영은 5회 미만이었다”며 “부

득이란 추가 촬영의 경우 모든 스태프 및 배우들로부터 충분한 사전 양해를 구하고 추가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상황 진정을 위해 제작사가 발 빠르게 입장을 내놨지만 이번 논란은 원금을 작성한 누리꾼이 실제 ‘군함도’에 참여했는지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은 만큼 또 다른 여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소재인 영화가 ‘특정세력’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에서 나온 ‘의도적 폭로’라는 또 다른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군함도’는 극중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 역할을 맡은 보조출연자 80여명을 고정으로 고용해 촬영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제작사와 직접 출연 계약을 맺었고, 나머지는 보조출연 에이전시와 계약해 영화에 참여했다.

이해리 기자

영화 랭킹			
자료:영화진흥위원회 6월 18일~6월 24일		1위 영화 정보보기	
순위	영화	누적관객	개봉일
1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	1,265,975	06/21
2	하루	898,135	06/15
3	미이라	3,498,262	06/06
4	악녀	1,089,695	06/08
5	원더 우먼	2,132,302	05/31
6	노무현입니다	1,782,939	05/25
7	캐리비안의 해적 5	3,035,248	05/24
8	더 서클	36,634	06/22
9	꼬마 참새 리차드	45,034	06/15
10	다크 하우스	23,376	06/22

편집 | 최해경·김철호 기자